

炭峴에 대한 小考

徐程錫*

< 목 차 >

- I. 머리 말
- II. 기존 학설의 검토
- III. 사료의 검토
- IV. 탄현의 위치
- V. 맺음 말

I. 머리 말

고분이나 성곽의 위치비정을 하는 작업은 연구의 맨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¹⁾ 역사적인 변천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다음에야 사료와 접목시켜 비로소 주인공이나 위치비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炭峴에 대한 위치 비정 역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탄현의 위치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성곽, 특히 백제성곽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구체적인 형태적 특징에 대한 학계의 일치된 견해가 없을 만큼 연구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炭峴은 하나의 성곽을 찾는 작업이 아니다. 더구나 그 위치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관련기록도 남아 있기 때문에 기록과 남아 있는 유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 약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炭峴에 대한 기록과 지금까지 연구된 백제성곽 연구를 종합하여 그 위치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炭峴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성곽 하나를 찾는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곽연구에 의존하는 것은, 炭峴이 성곽은 아니지만 당시의 신라와 백제 사이의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삼국시대의 교통로 주변에는 성곽이 축조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교통로와 성곽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²⁾ 다시 말해서 백제와 신라 사이의 교통로를 확인할 수 없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성곽 위치를 통해 양국의 교통로를 복원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姜仁求, 「新羅王陵의 再檢討(2) -脫解王陵-」,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1984, 299쪽.

2)서영일, 『신라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45~47쪽.

해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탄현의 위치도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실, 지금까지의 탄현 연구는 이 점에서 소홀했었다. 탄현의 위치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탄현 자체에 대한 설명도 있을 수 있고, 탄현을 거쳐온 신라군을 맞아 싸운 계백이 설치했다는 三營의 위치도 참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신라군의 출발지점과 최후의 전투가 벌어진 황산벌의 위치가 아닌가 한다. 탄현은 당연히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교통로상에 위치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황산벌과 당시의 교통로를 복원해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탄현의 위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만, 삼국시대의 지명이라는 것이 史書마다 異寫가 심하고, 현행의 지명과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인만큼 오류와 비약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생겨난 해석의 오류와 비약에 대해서는 따뜻한 叱正을 바란다.

II. 기존 학설의 검토

炭峴이 갖는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炭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당연히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지금까지 제시된 견해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炭峴의 위치를 扶餘 외곽에 비정한 견해이다. 이 견해는 安鼎福의 『東史綱目』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데,³⁾ 『新增東國輿地勝覽』⁴⁾과 『大東地志』⁵⁾에도 같은 내용이 남아 있다.

그 후, 이러한 주장은 今西龍에게 이어지고 있다.⁶⁾ 비록 今西龍은 炭峴과 成忠의 上書에 보이는 沈峴을 다른 곳으로 보아 沈峴은 대전시 서구 흑석동산성하 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신라군이 炭峴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계백이 황산벌에 나아간 것을 고려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견해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錦山面 川內里와 永同郡 陽山面 加仙里 사이에 있는 黔峴이라는 주장이다. 大原利武가 주장하는 것인데,⁷⁾ 추풍령을 지난 신라군이 부여·논산방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평탄한 도로이자, 최단거리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수긍되는 측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라군의 출발점이 추풍령이었는지가 의문이다. 아마도 경주, 혹은 今突城에서 출발하여 북상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은데, 황산벌로 나아가기 앞서 이미 南川停(경기도 이천)까지 북상하였던 것을 감안해

3) 『東史綱目』 第4, 丙辰三月. “...使陸路不過沈峴(一名 炭峴 在今扶餘縣東十四里)…”

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8, 「扶餘縣」 山川條. “炭峴 在縣東十四里 公州境”

5) 『大東地志』, 忠淸道, 扶餘縣, 山水條. “炭峴 一云 沈峴 東南二十四里 石城界 東城王二十三年 設柵備新羅”

6) 今西龍, 『百濟史研究』, 吉川弘文館, 1934, 266쪽.

7) 大原利武, 「百濟の要害地炭峴に就て」, 『朝鮮史講座·朝鮮歷史地理』, 88~90쪽.

볼 때 실제로 신라군의 출발점이 추풍령이었다는 주장은 수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는 報恩~沃川 방면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大原利武와 달리 南川停에서 泗泚로 진출하는 노선으로 음성 - 보은 - 옥천 - 연산과 죽산 - 진천 - 청주 - 문의 - 회덕 - 연산 등 두 코스를 가정하고, 그 중 후자는 빨리 백제 영역내로 진입하기 때문에 불리한 반면에 전자는 신라의 對百濟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報恩을 거치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탄현은 報恩~沃川 방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⁸⁾

이 주장은 당시 신라군의 출발전 상황과 출발지점을 염두에 두고, 출발지점에서 連山에 이르는 노선상에서 탄현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두 코스 중에서 전자, 즉 보은지역을 거쳐서 연산지역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후 이 분야 연구에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報恩~沃川 방면이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위치를 지적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넷째는 雲洲面과 錦山 사이에 있는 炭峙라는 주장이다. 먼저, 小田省五는 古地圖를 통해 전라도 錦山縣과 高山縣 사이에 있는 산맥에 炭峴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1:5만 지도에 보이는 全州郡 雲東下面 三巨里와 西坪里의 중간에 있는 炭峙와 동일 지점으로 보고, 이곳을 炭峴으로 비정하였다.⁹⁾

이러한 小田의 견해를 받아들여 현지 답사를 통해 재차 고증을 시도한 것이 洪思俊이다.¹⁰⁾ 輕部慈恩과 全榮來 역시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完州郡 雲洲面 姑堂里와 山北里 사이에 있는 쑤고개를 탄현으로 보고 있다.¹¹⁾

성주탁은 錦山郡 珍山面 校村里의 쑤고개로 보고 있는데,¹²⁾ 위치는 약간 다르지만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현지 답사를 통한 유적의 조사와 지형·지세의 관찰이라는 측면에서 종래의 탁상논리에서 한 단계 진전된 연구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현장조사, 혹은 역사지리적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이 생각되기도 한다. 임존성이나 주류성의 위치비정에서도 보듯이 지형·지세에 대한 설명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영래는 백제에서 방어가 가장 허술한 코스를 택해서 신라군이 진격하였다고 보고 있다. 신라와 백제 사이의 주요 교통로가 아닌 뒷길로 돌아서 진격했다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당시의 시급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일말의 蓋然性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곽을 교통로상에 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8)津田左右吉, 『百濟戰役地理考』, 『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1964, 168쪽.

9)小田省五, 『朝鮮史大系』(上世史), 1967, 194쪽.

10)洪思俊, 『炭峴考』, 『歷史學報』 35·36合號, 1967, 57쪽.

11)①輕部慈恩, 『百濟遺跡の研究』, 吉川弘文館, 1971, 133~134쪽.

②全榮來, 『炭峴에 觀한 研究』, 『全北遺蹟調査報告』 13, 1982, 8쪽.

12)成周鐸, 『百濟 炭峴 小考』, 『百濟論叢』 2,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0, 15~18쪽.

그 길을 거치지 않고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굳이 그곳에 축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백제의 방어가 허술한 지점을 택해서 진격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섯 째는 대전의 동쪽이라는 설이다. 먼저, 池内宏은 충청남·북도의 道界에 해당되는 馬道嶺(대동여지도의 遠峙)을 炭峴으로 비정하였다.¹³⁾ 그 후 이 주장은 李丙燾,¹⁴⁾ 池憲英,¹⁵⁾ 李基白·李基東¹⁶⁾ 등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학계의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¹⁷⁾ 당시의 교통로나 황산벌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견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으로 炭峴에 관한 연구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약간씩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비정된 위치 역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대전동쪽에 비정하는 견해와 금산방면으로 비정하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시된 炭峴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째는 ‘炭峴’이라는 지명에 지나치게 집착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백제 당시의 炭峴이 후대에까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선시대의 지리지나 현행 1:5만 지도에까지 표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炭峴에 대해서는 이미 백제 당시부터 炭峴, 혹은 沈峴으로 불리고 있었다. 물론, 이것이 『三國史記』가 편찬될 당시의 혼란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이 주로 참조한 조선시대 이후의 각종 기록들이 남겨지기 이전에 이러한 혼란상이 빚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炭峴’이라는 지명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은 앞서서도 보았듯이 자칫 炭峴을 扶餘 근처로 비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실제로 炭峴이라는 명칭의 지명은 전국에 걸쳐 대단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앞서 소개한 것 이외에도 『新增東國輿地勝覽』 公州 山川條(炭峴 在州南三十里), 同 高山 山川條(炭峴 在縣東五十里)에 보이고, 『大東地志』의 白川 山水條(炭峴 西十三里), 麟蹄 山水條(炭峴 北一百四十里 高城界), 咸興 山水條(炭峴 東三十五里 倉嶺下 三十餘里 通洪原), 定山 山水條(炭峴山 石蓮寺) 등에도 탄현이 보인다. 그런가 하면 舊 大德郡의 炭洞面, 대전시 二沙洞과 所好洞 사이의 炭峴, 完州郡 雲洲面의 쭉고개 등이 더 있다.¹⁸⁾ 따라서 맹목적인 ‘炭峴’ 찾기는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신라군의 출발점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炭峴에 대한 여러 설이 제시되었지만 크게 보면 신라군이 황산벌의 북쪽에서 남하하였는가, 아니면 북상하여

13)池内宏, 「白江及び炭峴に就いて」,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4, 135~145쪽.

14)李丙燾, 『韓國史』(古代篇), 震檀學會, 1959, 433쪽.

15)池憲英, 「炭峴에 對하여」, 『語文研究』 6, 忠南大 語文研究會, 1970, 87~118쪽.

16)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I』(古代篇), 一潮閣, 1982, 292쪽.

17)成周鐸, 「大田附近 古代 城址考」, 『百濟研究』 5, 忠南大 百濟研究所, 1974.

18)成周鐸, 앞의 논문, 1990, 14쪽.

황산벌에 도달하였는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은~옥천 사이, 혹은 대전 동쪽에서 炭峴을 찾으려 했던 견해들은 모두가 신라군이 황산벌을 향해 남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가 하면 금산 일대에서 탄현을 찾으려 한 견해들은 한결같이 신라군의 출발점을 今突城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출발점의 차이가 서로 다른 위치 비정의 결과를 낳은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탄현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신라군의 출발점을 알아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정작 중요한 황산벌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성주탁의 경우, 현행 1:5만 지도를 보면 連山面 官洞里와 表井里 사이에 ‘黃城’이 있고, 동남쪽으로 직선거리 3km 지점에 ‘황령재’가 있으며, 黃城 남남동쪽 3.5km 지점에 ‘황산리’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連山面 新良里 일대를 황산벌로 비정하고 있다.¹⁹⁾ 그러나 ‘黃城’, ‘황령재’, ‘황산리’가 있는 곳에는 新良里 이외에 官洞里, 連山里, 華岩里 등지가 더 있다는 점에서 관동리와 연산리를 제외한 신량리 일대에 비정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황산벌은 신라군의 진격로를 상징할 때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황산벌의 위치에 따라 남하하였던 것이 될 수도 있고, 북상한 것이 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탄현의 위치가 전혀 다른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炭峴의 위치는 황산벌의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사료의 검토

주지하다시피 炭峴은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要路였다. 더구나 炭峴은 지형이 험하여 적의 침입을 쉽게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要害地였다. 炭峴이 갖는 이러한 전략적인 중요성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된 백제에서 계책을 논의할 때 여러 대신들이 “羅軍升炭峴 由徑而不得並馬 當此之時 縱兵擊之 譬如殺在籠之雞 籠網之魚也”²⁰⁾라고 한 데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성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炭峴을 거치는 것은 ‘조롱 속의 새’나 ‘그물 속의 물고기’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백제에서 이곳에 굳이 성곽을 축조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탄현의 위치는 어디일까. 탄현의 위치를 짐작케 하는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① 七月 設柵於炭峴 以備新羅(『濟紀』 동성왕 23년조)

② 成忠瘦死 臨終上書曰 忠臣死不忘君 願一言而死 臣常觀時察變 必有兵革之事 凡用兵

19) 成周鐸, 앞의 논문, 1990, 20쪽.

20) 『三國史記』 卷 28, 『百濟本紀』, 義慈王 20年條.

必審擇其地 處上流而迎敵 然後可以保全 若異國兵來 陸路不使過沈峴 水軍不使入伎伐浦之岸 據其險隘以禦之 然後可也 王不省焉(『濟紀』 의자왕 16년조)

③ 時佐平興首得罪流竄古馬彌知之縣 遣人問之曰 事急矣 如之何而可乎 興首曰 唐兵既衆 師律嚴明 況與新羅共謀犄角 若對陣於平原廣野 勝敗未可知也 白江(或云伎伐浦)炭峴(或云 沈峴) 我國之要路也 一夫單槍 萬人莫當…(『濟紀』 의자왕 20년조)

④ 於時大臣等不信曰 興首久在縲紲之中 怨君而不愛國 其言不可用也 莫若使唐兵入白江 船流而不得方舟 羅軍升炭峴 由徑而不得並馬 當此之時 縱兵擊之 譬如殺在籠之雞 籬網之魚也 王然之(『濟紀』 의자왕 20년조)

사료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炭峴은 실로 백제의 要害地로써 ‘一夫單槍’이라도 ‘萬人莫當’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한 炭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은 가)-①에서 보듯이 동성왕 때 부터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毗有王 7년(433) 이래로 羅濟同盟이 유지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갑자기 炭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신라쪽의 움직임이 백제를 의심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광개토대왕의 南征 이후 그 영향력하에 있었던 신라에서는 신라 영내에 있던 고구려군을 모조리 살해하는 사건²¹⁾을 계기로 고구려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481년에는 고구려군이 신라의 王都 근처인 彌秩夫(홍해)까지 침입해 오기도 하였다.²²⁾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라에서는 慈悲麻立干 13년(470)에 보은에 삼년산성을 축조한다.²³⁾ 동해안쪽으로의 고구려의 남하 뿐 아니라 중부 내륙을 통한 남진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삼년산성을 통해 금강유역 서쪽인 옥천과 영동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장차 백제의 왕도인 웅진이나 사비를 인후부에서 공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해 두려는 의도를 다분히 갖고 있었던 것이다.²⁴⁾ 다시 말해서 삼년산성의 축조는 고구려의 남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장차 백제를 겨냥한 신라의 북진의지를 천명한 것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후 백제에 대한 신라 공격의 근거지는 이 삼년산성이 된다.

동맹국이었던 신라쪽의 움직임이 이렇게 돌아가자 백제에서도 탄현에 設柵하여 만일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자연히 탄현은 백제의 동쪽 국경선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

21)『日本書紀』, 雄略紀 8年條. “春二月…於是 新羅王乃知高麗僞守 遣使馳告國人曰 人殺家內 所養鷄之雄者 國人知意 盡殺國內所有高麗人”

22)『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炤知麻立干 3年條.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23)『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慈悲麻立干 13年條. “築三年山城 三年者 自興役始終三年訖功 故名之”

24)梁起錫, 「삼년산성의 역사성과 연구성과」, 『三年山城 - 기본자료 및 종합 보존·정비 계획안-』, 忠北大 中原文化研究所, 2001, 217쪽.

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런 점에서 신라의 대백제 침공 근거지가 삼년산성이 되는 한 炭峴의 중요성은 비록 사비로 천도한 다음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이 간다. 용진시대의 탄현과 사비시대의 탄현은 동일한 지점에 해당되는 셈이다.

비록 사료 가)를 통해서 炭峴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상과 같이 炭峴이 삼년산성 - 용진, 혹은 삼년산성 - 사비를 연결하는 교통로상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그 위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IV. 탄현의 위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炭峴에 대한 기록은 여기 저기에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사료 가) 이외에 『三國遺事』 「太宗春秋公」조에도 炭峴은 등장하지만 사료 가)와 마찬가지로 위치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炭峴에 관한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도 이러한 불충분한 사료가 일차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사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당시 신라군의 진격로와 이에 대항한 백제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 炭峴의 위치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파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군의 진격로를 파악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출발점과 황산벌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炭峴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은 신라군의 당시 출발지점과 황산벌의 위치, 그리고 진격로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황산벌의 위치

지금까지의 炭峴에 대한 연구에서는 신라군의 진격로상에 위치하였던 황산벌의 위치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오히려 황산벌전투에서 계백이 설치한 三營의 위치 비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러한 三營을 連山管内의 성곽에 위치 비정해 왔다. 관동리산성과 청동리산성, 외성리산성을 三營으로 본다거나²⁵⁾ 山直里山城을 중심으로 黃嶺山城, 新興里山城을 좌우에 배치한 三營을 상정한 것이 그것이다.²⁶⁾

그런데, 당시의 전투 장면을 살펴보면 백제군이 과연 성곽에서 籠城하고 있었는지에 의문이 든다. 당시의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다음의 사료를 보자.

25)池憲英, 앞의 논문, 1970, 100쪽.

26)成周鐸, 앞의 논문, 1990, 23쪽.

나) - ① 金令胤 沙梁人…太宗大王七年庚申 唐高宗命大將軍蘇定方伐百濟 欽春受王命 與將軍庾信等 率精兵五萬 以應之 秋七月 至黃山之原(『列傳』, 金令胤)

② 官昌一云官狀 新羅將軍品日之子…至唐顯慶五年庚申 王出師 與唐將軍侵百濟 以官昌爲副將 至黃山之野 兩兵相對…(『列傳』, 官昌)

③ 階伯 百濟人…遂盡殺之 至黃山之野(『列傳』, 階伯)

위의 사료 나)에서 보면 당시 전투가 벌어진 장소를 한결같이 ‘黃山之原’, 혹은 ‘黃山之野’로 설명하고 있다. 성곽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관창이 활약하는 모습은 성곽전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다. ‘황산벌전투’는 말 그대로 ‘黃山之野’에서 이루어진 전투였다.

물론, 이러한 ‘黃山之野’의 전투는 興首가 경고하였듯이 당연히 숫적으로 열세였던 백제에게는 불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백제군이 ‘黃山之野’에서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유리한 전략적 거점이었던 炭峴에서 방어하는데 실패하였고, 두 번째는 이 전투가 삼국시대 전투 중에서는 전무후무한 全面戰이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시대는 전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던 일종의 戰國時代였다. 크고 작은 전투가 3년에 한 번씩 되풀이 되었고, 그 사이에는 다시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등 항상 전시체제하에 놓여 있었다. 물론, 이 때의 전투는 모두가 국경선 근처에서 이루어진 局地戰적인 성격이었다.

이러한 局地戰에 대한 대비책으로 삼국은 다같이 성곽에 의한 방어체계를 갖추었다. 前緣防禦體系와 縱心防禦體系, 衛星防禦體系가 그것이다.²⁷⁾ 전연방어체계란 국경선을 따라 성곽을 배치하는 방어체계를 말하고, 중심방어체계는 국경선에서 왕도에 이르는 교통로상에 성곽을 배치한 방어체계를 말한다. 위성방어체계는 왕도 주변에 왕도를 중심으로 環狀으로 성곽을 배치한 방어체계를 말한다.²⁸⁾

이 중에서 당연히 중요한 것은 중심방어체계였다. 고구려를 침공한 수나라가 평양성 30리 밖까지 육박하였다가 끝내 도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철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고구려군이 구사한 이러한 중심방어체계적인 전술 때문이었다.

27)蔡熙國·全浩天譯, 「高句麗の城の特徴」, 『東アジアと日本』(考古·美術 篇), 吉川弘文館, 1987, 552~561쪽.

28)위성방어체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고구려나 신라의 경우 왕도 주변에 배치된 성곽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백제의 경우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측면이 남아 있다. 사비도성 주변의 석성산성, 청마산성, 성흥산성, 증산성 등이 당시의 성곽이라면 이것 역시 위성방어체계라고 부를만 하지만 이들이 모두 백제성곽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수나라를 뒤이어 고구려를 침공한 당나라는 고구려가 구사하는 이러한 중심방어체계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모든 성곽을 함락시키면서 전진한다. 당연히 국경선에 있는 모든 성곽을 하나씩 공격하여 격파시킨다. 그러나安市城에서 막히고 말았다.

백제 역시 이러한 중심방어체계에 입각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660년 7월에 있었던 전투는 전무후무한 全面戰이었다. 당시 전투에 참여한 신라군은 5만이었다고 한다.²⁹⁾ 사비시대에 백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군사가 6만이었다는 사실을³⁰⁾ 감안해 볼 때 精兵 5만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신라군은 신라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全面戰이었던 것이다.

어느 한 쪽이 상대편에 대해서 절대 우위에 있지 못했던 7세기대 삼국 정세를 감안해 볼 때 신라에서 이렇게 全面戰을 감행한 것은 뜻밖의 일로 볼 수 밖에 없다. 신라가 이때 이렇게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전면전을 감행한 것은 다름아닌 당나라의 13만 대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당연합군은 수륙양면에서 협공하여 단시일내에 의자왕의 항복을 받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백제침공 과정을 살펴보면 백제의 전략적인 주요 거점지나 성곽을 무력화시키거나 함락시켜 자기 영역화 하지 못하고 곧장 사비도성으로 통하는 지름길을 따라 침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³¹⁾ 그런 점에서 의자왕의 항복 후 百濟故地 全域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특히 黑齒常之의 봉기 이후 10일도 안되어 歸附한 자가 3만에 이르고, 200여 城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³²⁾ 실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황산벌전투는 종전까지 있었던 백제 - 신라간 전투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백제를 침공할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成忠이나 興首가 방어책으로 성곽이 아닌 炭峴과 기벌포를 들었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아무리 숫적으로 우세하다 하더라도 ‘一夫單槍 萬人莫當’했다는 炭峴을 지나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백제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構造曲과 같은 炭峴을 지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어책이었다. 그러나 이 때의 전투 역시 종전까지의 전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의견들

29)『三國史記』卷5,「新羅本紀」太宗武烈王 7年條. “…王喜不自勝 又命太子與大將軍庾信將軍品日 欽春等 率精兵五萬應之…”

30)『唐書』「百濟傳」에 의하면 ‘兵有六萬’이라 하여 백제의 병력이 6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金周成,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지방사회의 재편」, 『國史館論叢』 35, 1992, 43 쪽).

31)백제 멸망 후 부흥운동 과정에서 등장하는 加林城의 존재나 신라에서 백제로 통하는 熊津道를 차단하면서 항거했던 眞峴城의 존재가 이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2)이것을 부흥운동 최전성기의 사실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沈正輔, 「百濟 復興軍의 主要據點에 關한 研究」, 『百濟研究』 14, 1983, 145쪽의 註 1).

이 백제 조정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옥신각신하다 결국 신라군이 炭峴을 별 저항없이 지나도록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신라군이 炭峴을 지난 이후 출정한 계백은 황산벌에서 전투를 치룰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炭峴 以西地域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곳이 바로 이 황산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황산벌이 위치한 連山地域은 말 그대로 ‘山脈이 連이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서쪽에서 사비도성까지는 방어에 적당한 이렇다할 險山이 없고 평야지만 계속되고 있다. 성충이 경계했던 ‘평야’인 셈이다. 따라서 계백의 입장에서는 연산의 동부지역, 다시 말해서 연산평야가 시작되는 동쪽 끝에서 결전을 치룰 수 밖에 없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황산벌은 연산 동부의 어느 지점일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連山面 新良里 일대를 황산벌로 보고 있다.³³⁾ 이것은 계백의 三營을 黃嶺山城과 山直里山城, 新興里山城으로 본 결과인데,³⁴⁾ 앞서 설명하였듯이 계백의 三營은 말 그대로 험한 지형에 의지한 陣營이지 城郭이 아니었다. 만일 이 때 계백이 산성 안에 들어가 籠城하고 있었다면 신라군은 굳이 산성을 격파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전진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전술은 삼국시대 때 있었던 일반적인 전투(局地戰)에서는 구사할 수 없는 전술이었지만 660년 7월에는 全面戰을 감행하고 있었던 만큼 그것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계백은 산성 안에 농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라군이 진격하는 교통로를 차단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눈에 띄는 것이 다음의 기록이다.

- 다) - ① 黃山 一云天護山 在縣東五里
- ② 新羅金庾信將兵 與唐蘇定方攻百濟 百濟將軍階伯禦羅兵于黃山之野 設三營 四戰皆勝 兵寡力屈而死
- ③ 甄萱從高麗太祖 討伐子神劍 神劍兵敗而降 萱憂滿發疽 數日卒於黃山佛舍

사료 다)는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18, 「連山縣」山川條에 보이는 기록이다. 여기에서 보면 다)-①을 통해 黃山이 곧 天護山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開泰寺가 이 천호산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천호산과 같은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개태사와 천호산이 있는 연산면 天護里, 松亭里, 連山里 일대가 고려와 후백제의 마지막 전투장소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다)-②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이곳은 비단 후삼국이 통일될 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황산벌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사실, 開泰寺가 위치한 천호리·연산리 일대는 鷄籠山地와 천호봉 - 함박봉 - 국사봉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山地 사이에 놓여 있는 構造曲에 해당되는 곳으로 북쪽인 대전에서 연산지역으로 남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그리고 연산평야가

33)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黃山벌戰蹟地』, 2001.

34)成周鐸, 앞의 논문, 1990, 23쪽.

시작되는 동쪽 끝에 해당된다. 실로 한발벌을 지나온 군대는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서쪽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반대로 이곳에서 막지 않으면 그 以西에서는 더 이상 대군을 대적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백제나 후백제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백제의 입장에서 탄현 以西地域에서는 대군을 상대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 바로 현재의 연산면 연산리 일대였다. 그런 점에서 황산벌전투의 현장 ‘黃山之野’는 바로 연산리 일대가 아닌가 한다.

2. 신라군의 진격로

黃山之野가 현재의 연산면 연산리 일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신라군이 이곳에 이르렀을까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신라군의 진격로상에 문제의 炭峴도 자리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黃山之野로 생각되는 연산면 연산리로 나오기 위해서는 개태사가 자리한 構造曲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構造曲을 빠져 북쪽으로 나오면 곧바로 도달하게 되는 곳이 현재의 대전시 松亭洞을 거쳐 黑石洞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신라군은 이곳 흑석동의 흑석동산성 앞을 거쳐 한발벌을 지난 다음 현재의 대전시와 충청북도의 경계에 해당되는 증약 - 옥천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따라 진격해 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교통로는 660년 7월에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비도성과 신라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였다.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는 것이 관산성전투다.

주지하다시피 한강유역을 빼앗긴 성왕은 경주와 한강유역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던 삼년산성을 공격하기 위해 554년에 신라를 침공한다.³⁵⁾ 이 때 백제군을 방어하기 위해 三年山郡의 군사는 물론이고 멀리 新州에 있던 군사들까지 참전하게 되는데, 管山城의 함락이 미칠 수 있는 여파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백제군이 管山城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管山城은 백제에서 삼년산성으로 가는 교통로상에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교통로는 사비 - 관산성 - 삼년산성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추론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백제군은 삼년산성에 이르기 전에 당연히 한발벌(흑석동산성 = 眞峴城)을 거쳤을 것이다. 금산을 통해서 관산성에 나아가기 보다는 한발벌을 통해 관산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삼년산성 - 관산성 - 한발벌 - 사비도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는 이미 사비시대 초기부터 개통되어 있었던 셈이다.

백제에서 신라에 이르는 이 교통로는 이후 사비도성이 함락될 때까지 계속해서 간선도로로써 기능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35)『三國史記』卷 26, 「百濟本紀」, 聖王 32年條. “秋七月 王欲襲新羅 親帥步騎五十 夜至狗川”

- 라) - ① 九月十九日 大王進次熊峴亭…二十五日進軍圍甕山城 至二十七日 先燒大柵 斬殺數千人 遂降之(『羅紀』 문무왕 원년조)
- ② 八月 百濟殘賊屯聚內斯只城 遣欽純等十九將軍討破之(『羅紀』 문무왕 2년조)
- ③ 上州總管品日 與一牟山郡太守大幢 沙尸山郡太守哲川等 率兵攻雨述城 斬首一千級 (『羅紀』 文武王 元年條)
- ④ 仁願仁軌等 大破福信餘衆於熊津之東 拔支羅城及尹城大山沙井等柵 殺獲甚衆 乃令分兵以鎮守之(『濟紀』 義慈王 20년조의 唐 龍朔 2년 7월조.)
- ⑤ 福信等以眞峴城 臨江高險 又當衝要 加兵守之 仁軌引新羅之兵 勝夜薄城…遂通新羅軍糧之路(『濟紀』 義慈王 20년조의 唐 龍朔 2년 7월조.)

사료 라)는 사비도성이 함락된 후 전개된 부흥운동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甕山城, 內斯只城, 眞峴城, 沙井柵, 尹城 등지에서 부흥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성곽은 대전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실제로 웅산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³⁷⁾ 內斯只城은 현재의 대전시 유성구가 분명하다.³⁸⁾ 또한, 眞峴城은 현재의 대전시 유성구 흑석동에 위치한 흑석동산성임이 거의 분명하다.³⁹⁾

이렇게 사료상의 모든 城柵을 위치비정 할 수는 없지만 비정이 가능한 성곽을 중심으로 볼 때 사료 라)에서 설명하는 전투들이 대체로 현재의 대전시 일대에서 벌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⁴⁰⁾

그럼, 이 당시 이 지역이 왜 주요 戰場이 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眞峴城의 예에서 보듯이 부흥군들이 이 지역의 성곽을 근거로 신라에서 留鎮唐軍에게 전달되는 식량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흥군들이 이 지역의 성곽을 근거로 留鎮唐軍에게 전달될 식량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바로 신라에서 백제의 웅진이나 사비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유일한 교통로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府城에 주둔하고 있던 唐軍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이 지역의 부흥군을 공격하여 성곽을 함락시킬 수

36)沈正輔, 「百濟 復興軍의 主要 據點에 關한 研究」, 『百濟研究』 14, 忠南大 百濟研究所, 1983, 143~178쪽.

37)朴淳發, 「鷄足山城의 國籍 : 百濟인가 新羅인가」, 『충청학연구』 1, 한남대 충청학연구센터, 2000

38)『三國史記』 卷 36, 「雜志」 5, 地理 3, 熊州. “比豐郡…儒城縣 本百濟 奴斯只縣”

39)①沈正輔, 앞의 논문, 1983, 167~169쪽.

②徐程錫, 『百濟의 城郭』, 學研文化社, 2002, 318~323쪽.

40)실제로 이 때의 전투장소를 라)-④에서는 ‘熊津之東’이라 하여 현재의 대전시 주변임을 암시하고 있다.

밖에 없었다.

이 지역은 일찍이 신라의 5만군이 사비도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거쳐간 곳이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당시에는 이러한 성곽이나 전략적인 요충지, 즉 柵과 같은 것을 격파시키지 않고 곧장 사비도성으로 진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로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眞峴城을 비롯한 많은 백제의 城柵들이 사비도성이 함락된 다음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⁴¹⁾ 그리고 이것이 부흥운동시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

한말벌에 있었던 여러 성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는 眞峴城이었다. 사료(라)-⑤에서도 보듯이 眞峴城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야 나당연합군은 겨우 糧道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만큼 중요한 성곽이었던 셈이다. 백제의 성곽 배치의 일반적인 예로써는 과격에 가까울 정도로 縣단위에 불과하였던 眞峴縣에 성곽이 축조되어 있었던 것⁴²⁾ 자체가 眞峴城의 전술적인 중요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眞峴城이 위치한 곳이 한말벌에서 황산벌(연산면 연산리 일대)로 통하는 構造曲의 북쪽 끝에 해당되는 곳이다. 구조곡을 사이에 두고 남쪽 끝에 황산벌, 북쪽 끝에 眞峴城이 자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로써 황산벌의 위치와 황산벌로 나아오기 전에 신라군이 거쳤던 곳이 한말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군은 앞서 제시한 대로 옥천 - 한말벌 - 황산벌 - 사비도성의 코스를 거쳤던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留鎮唐軍이 거점을 泗泚都城에서 熊津府城으로 옮긴 뒤에도 계속해서 이곳이 신라와 府城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교통로는 聖王이 관산성 전투에 나서기 이전인 이미 웅진시대부터 개통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성왕 때 設柵했다는 탄현과 660년 당시의 탄현은 모두가 동일한 장소였던 셈이다.

V. 맺 음 말

백제의 대표적 전략적 요충지인 炭峴에 대한 연구는 백제의 왕도 방비체제 및 당시의 국경선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기울여져 왔고, 그 결과 다양한 위치비정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炭峴의 위치에 대해 제기된 주장을 보면 크게 대전 동쪽으로 보는 견해와 금산 방면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신라군의 출발지점과 황산벌의 위치를 서로 달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대전

41) 황산벌 바로 남쪽에 있었던 것이 거의 분명한 백제의 동방성(得安城)이 황산벌 전투시에 함락되지 않고 663년에 함락되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42) 徐程錫, 「백제 부흥운동기 군사활동과 산성」, 『백제 부흥운동의 재조명』(심포지움발표요지), 公州大 百濟文化研究所, 2002, 77~79쪽.

동쪽으로 파악한 견해들은 한결같이 당시 신라군의 출발지점을 보은의 삼년산성으로 보고 삼년산성 - 옥천 - 대전(한밭벌) - 황산벌 - 사비로의 진격노선을 상정하였다. 당연히 탄현의 위치는 옥천과 대전사이에 놓여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옥천과 대전 사이에는 馬道嶺, 혹은 遠峙로 표현되는 고개가 자리하고 있다. 자연히 이 馬道嶺이나 遠峙가 문제의 炭峴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池內宏 이후 池憲英, 李丙燾, 李基白·李基東 등을 거치면서 학계의 통설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한편, 금산방면으로 비정한 견해들은 당시 신라군의 출발점을 今突城으로 보고, 신라군의 진격로를 금돌성 - 영동 - 금산 - 황산벌 - 사비로 파악하였다. 홍사준, 輕部慈恩, 전영래, 성주탁 등에 의해 제시된 견해이다. 이러한 입론에 따른다면 탄현은 당연히 금산에 위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그 안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 運洲 삼거리의 쭉고개, 혹은 진산 교촌리의 숲고개를 탄현으로 비정하는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계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탄현의 위치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된 것은 무엇보다도 사료의 부족의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인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炭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전국에는 ‘炭峴’으로 불리는 지명이 곳곳에 남아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탄현의 위치는 지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시 신라와 백제의 교통로, 신라군의 진격로 등을 감안하여 파악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신라군의 출발지점, 황산벌의 위치가 곁들여진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비도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출발한 신라군의 출발지점은 삼년산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⁴³⁾ 南川停까지 올라갔던 신라군이 대백제 공격의 전초기지였던 삼년산성을 지나 今突城까지 후퇴한 다음 다시 북상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않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금돌성까지 후퇴한 것은 태종무열왕 자신이고,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군은 삼년산성을 출발하여 炭峴을 통과한 다음 황산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라군과 백제군 사이에 최초의 전투가 벌어졌던 황산벌은 현재의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일대로 추측된다. 이곳은 역사상 두 번에 걸친 중요한 전투가 벌어진 곳인데, 첫 번째 전투가 백제와 신라 사이에 벌어진 660년 7월 전투이고, 두 번째는 후백제와 고려 사이의 최후의 전투가 그것이다.

후백제와의 최후의 전투를 승리로 장식함으로써 실질적인 후삼국 통일을 완성한 고려 태조는 종전의 黃山을 天護山으로 고치고, 開泰寺라는 사찰도 창건하게 된다. 천호산과 개태사가 현재도 이곳에 남아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황산벌은 이곳 연산리·관동리 일대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삼국시대 때에도 신라군은 삼년산성 - 옥천 - 대전 - 황산벌로 진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3)梁起錫, 앞의 글, 2001, 219쪽.

炭峴의 위치를 금산방면에서 구하려는 견해들은 대전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백제 성곽을 들어 신라군이 이러한 철통같은 백제의 방어망을 피해서 금산쪽으로 우회한 다음 황산벌로 나아갔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만일, 이렇게 금산으로 우회하는 교통로가 있었다면 부흥운동기에 ‘熊津之東’에 백제의 ‘殘賊’들이 屯聚해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기가 곤란해진다. 熊津都督府城에 머물러 唐軍의 입장에서 이 지역까지 백제의 ‘殘賊’들을 소탕하러 출동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백제 부흥군들은 신라에서 府城에 전달되는 군량미를 차단시켰고, 이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留鎮唐軍은 마침내 이 지역까지 출정하여 眞峴城을 비롯한 이 지역의 城柵을 격파함으로써 비로소 군량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것은 반대로 금산쪽으로 우회하는 교통로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상과 같이 660년 7월, 황산벌로 진격한 신라군의 진격로가 삼년산성 - 옥천 - 대전 - 황산벌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炭峴의 위치는 기존의 통설대로 옥천과 대전 사이에 위치해 있던 것이 분명해 진다. 마침 『대동여지도』에는 이곳에 遠峙가 표시되어 있는 만큼 이 遠峙가 탄현일 가능성은 그 만큼 높다고 생각된다.